

주요 신흥국 동향 모니터링

아시아 (2014. 1분기)

-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



2014년 4월 21일

작성: 책임조사역 임영석 (3779-5704)
조사역 박두정 (3779-5709)
조사역 김지용 (3779-5716)
확인: 실장 김주영 (3779-5702)

yslim@koreaexim.go.kr
pdj@koreaexim.go.kr
jyk@koreaexim.go.kr
jykim@koreaexim.go.kr

< 목 차 >

I. 국별 주요 동향	1
II. 국별 지급능력 분석	2
1. 중 국	2
2. 베트남	4
3. 인 도	6
4. 인도네시아	8
III. 국별 주요 경제지표	10

I. 국별 주요 동향

□ (중국) 경기부양 의지 표명 및 환율 변동폭 확대

- 중국 정부는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년 연속 7.5%로 설정하고 재정지출을 전년 대비 9.5%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특히,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를 14.5%로 유지함.
- 또한, 자본시장 발전, 위안화 국제화, 투기성 단기자금 차단 등을 위해 금리 및 환율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함.

* 환율변동폭을 ±2.0%로 확대 등

□ (베트남)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산업 추가 개방 단행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재대출금리 (Refinancing rate)를 7.0%에서 6.5%로 하향조정함.(3.17)
- * 2014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4% 하락, 전년동기대비 4.39% 상승하는데 그침.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6.6%)
- SBV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의 베트남 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함.(1.8)

□ (인도) 기준금리 인상 이후 물가와 환율 안정화

- 2014년 1월 인도 중앙은행(RBI)은 기준금리를 기존 7.75%에서 8.0%로 인상*하고 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15년 8%, 2016년 6%로 설정함.
- 인도의 2014년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10%로 전월대비 0.69%p 하락하였고, 환율은 2013년 8월 1달러 당 69루피까지 상승했으나, 2014년 1분기에는 60루피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9월(7.25%→7.50%)과 10월(7.50%→7.75%)에 이은 세 번째 금리인상임.

□ (인도네시아) 루피아 강세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 유지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최근 소비자물가상승세 둔화, 경상수지 적자 축소, 루피아 강세 등을 감안, 2013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7.5%로 유지함.

* 반면, 2013년에는 외국인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당초 5.75%였던 기준금리를 7.5%까지 인상한 바 있음.

II. 국별 지급능력 분석

1. 중국

(1) 경제구조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투자 위주의 성장 지속

-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 막대한 외국인 투자액 유입 등에 힘입어 제조업이 발달하여 2010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제조업 국가로 성장하였음.
- 제조업 중심의 투자·수출 주도형 산업발전으로, 2013년 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와 수출 비중이 각각 46%, 25%를 차지함.

□ 도시화 추진 등으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 확대

- 14억에 육박하는 인구와 소득 증가로 중국은 미국, EU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실질 구매력 기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은 36.3%로 미국의 68.6%, 일본의 61.0%, 인도의 59.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내수 확대정책과 도시화 추진 등으로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이 큼.

(2) 주요 경제지표

□ 경상수지 흑자 비중 축소에도 FDI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확대 지속

- **(재정수지)** 복지, 교육, 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지출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중임. 2014년에도 GDP 대비 재정적자는 정부의 사회복지, IT, 인프라 부문 지출에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해외여행객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탄탄한 제조업에 힘입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에는 신흥국 금융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 해외여행객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GDP의 1.7%로 감소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FDI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에도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의 전환 추진

-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성장 전략은 계층간·지역간 소득 격차 심화, 산업구조 편중, 과도한 고정자산투자에 따른 생산능력 과잉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음.
-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 내수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강도 높은 도시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보장비용 확대, 최저 임금 인상, 전자상거래 활성화, 문화산업 등 서비스 분야 육성, 산업구조조정, 저부가가치상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 축소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그림자금융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아 지방정부의 부채 확대, 부동산 투기 촉진, 한계기업의 공급과잉 등 부작용을 야기함.
 -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정부의 제도권 은행에 대한 대출제한 정책에 따라 급격히 팽창하여 2013년말 현재 30.5조 위안(GDP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인민은행). 특히,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이 높아 부실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 한도 설정, 자산관리상품(WMP) 감독 강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 대출 규모 제한 등을 시행함.
 - 다만, 그림자 금융의 급격한 축소는 지방정부의 투자 위축, 부동산 경기 하락, 중소기업사의 자금 경색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림자 금융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감독할 계획임.

(4) 분석의견

- 중국은, 과잉투자, 소득불균형, 제조업 편중 등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내수 시장 확대, 산업고도화 추진, 3차 산업(서비스업) 확대 등 경제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해외차입과 외국인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은 2014년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3배 이상으로 높은데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유동성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2. 베트남

(1) 경제구조

□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에 크게 의존

- 개혁개방 이후 FDI 유치를 통한 가공무역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2013년 기준 160.6%)

* 수출+수입(상품 및 서비스)/GDP (수출/GDP: 81.5%, 수입/GDP 79.1%)

- 풍부한 저임노동력 활용 목적으로 진출한 외국계 섬유·봉제산업이 수출을 주도 하였으나, 최근 전자제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2013년에는 휴대전화가 동국의 제1위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중산층 확대에 내수시장도 꾸준히 성장

- 베트남은 세계 14위의 인구대국(인구: 약 9천만 명)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와 소비 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 급증이 내수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기준 GDP 대비 소비 비중은 72.2%로 추정됨.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되나 경상수지 흑자와 FDI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증가 예상

- **(재정수지)** 각종 세제 혜택 부여,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에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2014년에도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0%로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전자, 섬유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음.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소비심리 회복과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5.3%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상수지 흑자 실현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2011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377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복잡한 행정절차로 국영기업과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성과는 미흡

-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으로 2012년 기준 베트남 GDP의 32.6%, 투자의 37.8%를 차지하는 국영기업 부문이 부실화됨.
 - 국영기업의 민영화(주식회사 전환), 비핵심사업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국영기업 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여건 악화, 복잡한 행정절차로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임.
- 국영기업 부실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베트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2013년 10월 기준 4.73% 수준에 달함.
 -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 유치, 부실자산 관리기관(베트남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을 통해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과 건전성 제고를 추진 중임.

□ FDI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이거나, 재원조달에 어려움

-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열악한 인프라, 만연한 부정부패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베트남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148개국 중 82위 수준(세계경제포럼)이며, 부정부패는 177개국 중 116위(국제투명성기구)임.
- 베트남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며,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 의지도 높음.
 -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프라 개발투자액의 대부분을 원조자금이나 외국인 민간 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이 지지부진함.

(4) 분석의견

- 최근 외환보유액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64% 수준에 불과하여 대외지급능력이 취약함.
- 다만, 2011년 이후 동 비율의 개선*, 제조업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수출품목 다변화 등을 감안하면, 동국의 대외지급능력의 취약성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 ('11) 33% → ('12) 55% →('13^o) 59% →('14^l) 64%

3. 인도

(1) 경제구조

□ 중산층 인구 급증으로 거대 내수시장 확대 지속

- 인도는 약 12억 명(세계 2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중산층 인구 급증*으로 향후 소비 확대를 예상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음.

* 2013년 1.6억 명 → 2015년 2.7억 명 → 2025년 5.5억 명

□ IT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유지 지속

- 인도는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임.
- * 2012년 GDP 구성: 농업 14.0%, 제조업 19.2%, 서비스업 66.8%
-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기술력을 겸비한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의 주력이 되고 있음.

- 인도는 IT 산업이 총수출의 25%를 차지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콜센터 등 세계 IT 아웃소싱 기지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음.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적자는 지속되나 수출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소폭 개선과 외환보유액 확대

- **(재정수지)** 경기 둔화로 세입은 축소된 반면, 보조금 지출은 확대되어 2010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8%대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에는 총선에 따른 지출 증가로 동 비중이 8.4%를 기록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금·석유 수입액 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됨. 2014년에는 금 수입관세 인상에 따른 금 수입 감소,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3.8%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적자 축소로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3년부터 확대되고 있음. 2014년에는 경기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FDI가 유입되어 외환보유액이 2,811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야당의 반대와 선심성 정책으로 조세개혁, 보조금 감축 등 재정수지 적자 축소 조치의 성과 불투명

- 비효율적 조세제도, 낮은 소득세율, 각종 보조금 지급 등으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이 높은 점이 인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는 조세개혁, 보조금 감축, 공기업 지분 매각, 정부투자 축소를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됨. 게다가 정부의 선심성 정책 추진 역시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3년 9월 식량안전법(Food Security Act)을 통한 식품 보조금 확대에 이어 2014/15 회계연도 준예산에서는 자동차, 휴대폰 관련 간접세 경감, 중장비, 기계류에 대한 소비세 인하를 발표함.
- 한편, 정부 개혁이 시현될 경우 인프라, 교육 부문의 무리한 재정지출 삭감으로 미래 성장동력 약화와 경제성장률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 FDI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추진

- 인도는 제조업 기반 확대, 만성적 쌍둥이 적자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정비,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제12차 경제개발계획(2012-17)에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확충에 8,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그러나 2012년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은 224억 달러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며, 투자대상 역시 IT 관련 업종에 집중됨.

(4) 분석의견

- 2014년 1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소비자물가지수와 환율이 안정되는 점은 긍정적이며, 금 수입 감소와 수출 증대로 상품수지 적자가 축소되어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외환보유액 규모는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3개월분 수입액)의 1.14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의 미흡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외지급능력 약화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어려움.

4. 인도네시아

(1) 경제구조

□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확대로 탄탄한 내수시장 보유

- 약 2.5억 명의 인구와 소득 증가로 내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2013년 소비가 GDP의 6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활발함.

□ 원유, 천연가스, 주석, 목재 등 원자재 중심의 수출 구조

-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주석, 니켈, 동 등 광물자원, 산림자원 역시 풍부하여 상품수출 중 원자재 비중이 높음.
 - 2012년 기준 상품수출 중 원자재 점유율은 63.3%(석유, 가스 등 연료 점유율 33.3% 포함)
- 기술력과 재원 부족으로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데다, 정유, 제련 등 시설도 부족한 상태임.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수지, 경상수지는 악화되나 FDI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증가 예상

- **(재정수지)** 인프라 구축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11년 이후 악화되고 있음. 2014년에는 총선, 대선 실시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에 동 비중이 2.5%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하락, 외국인투자자의 과실송금 증가, 외채 상환규모 증가 등으로 2012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2014년에도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악화 추세 지속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3.8%로 상승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자 시현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환율 방어 과정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2014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시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이 1,031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과 정책대응

□ FDI 유치를 위해 부정부패 해소와 투자환경 개선 추진

- 자원 개발의 효율성 제고, 원자재 의존도 완화를 위한 산업 다각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나, 부정부패와 정책 일관성 부족, 인건비 상승, 열악한 인프라 등이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는 내외국인 동등 대우, 과실송금 보장,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제한산업 축소 등을 시행하는 한편, 부패방지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광업법 개정안이 자원 민족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인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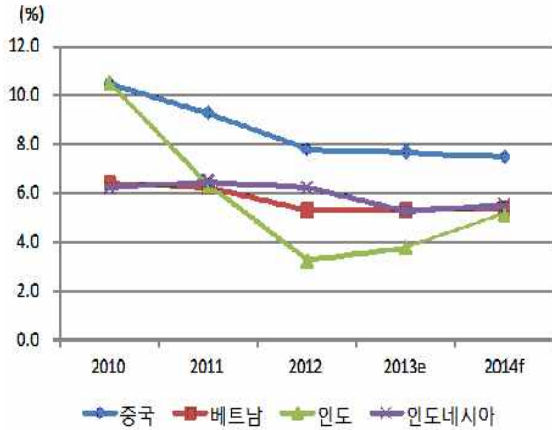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148개국 중 61위 수준으로 도로(78위), 항만(89위), 공항(68위), 전력공급(89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수립한 경제개발계획(2011~2025)에서 인프라 개발에 투자계획금액의 약 48%를 배정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민관협력(PPP) 방식을 활용한 민간 자금 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임.

(4)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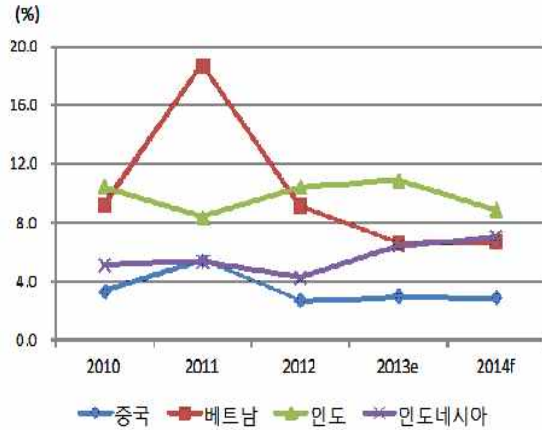
-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환율 하락과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이 진정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외환보유액이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7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성이 높음.**
- 게다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 민간부문 투자 증가세 둔화에 따른 경기부양 정책 실시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현 경제구조 하에서는 **세계 경기회복으로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지 않는 한 쌍둥이적자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유동성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Ⅲ. 국별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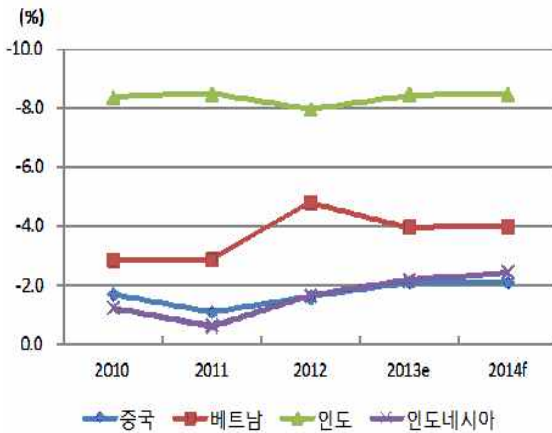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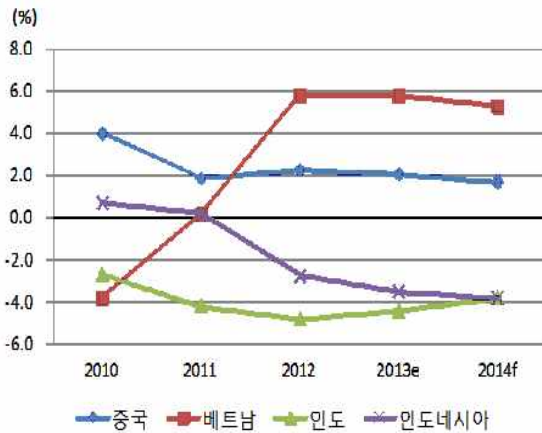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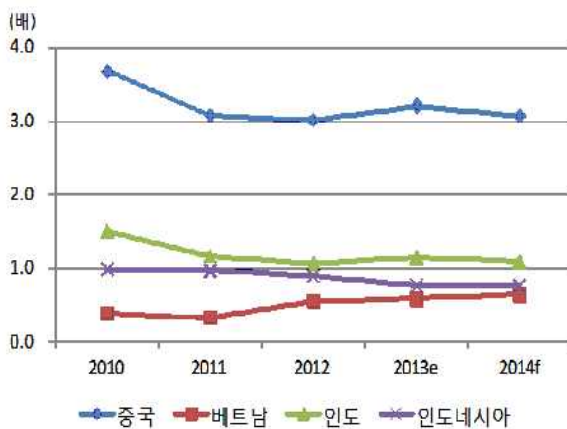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외환보유액¹⁾



환율(미 달러화 대비)²⁾



주 1) 외환보유액/(단기외채+수입금액의 3개월분)

2) 2010년초 환율 = 100

자료: IMF, EIU, IIF, OECD.